

95년 100만불 수출탑 수상 유관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

강신영 / 한국포장기계협회 사무국장
홍아기연(주) 전무이사

한국 포장기계협회가 창립한지 3년째를 맞아 조직을 개편하고 협회의 활성화에 나섰다.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이지만 지난달 30일 신년 하례회를 가짐으로써 출범 2기를 맞이했다.

포장기계협회 신임 사무국장직을 맡게 된 홍아기연 강신영 전무는 현재 포장기계업계의 당면 문제는 단지 포장기계업체뿐만 아니라 기타 유사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어려움이라 진단했다.

강 사무국장은 문제점으로 첫째, 업계의 영세성을 꼽았다. 영세성은 자본적인 면을 포함한 기술력, 인적자원의 부족을 뜻한다.

다시말하면 모든 것이 여유가 없어서 원칙적인 기계제작 공정을 무시하고 현장 위주의 형태로 처리해 도면 및 제품의 표준화, 규격화를 무시한 채 기계를 제작, 많은 시행착오로 소비자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게 되고 나아가서는 제작의 동일성, 연속성이 이루어지 않는 결점이 있다.

둘째, 협소한 국내시장에 따른 과당경쟁을 들었다.

한정된 수요에 공급과잉이 빚어져 덤핑 및 리베이트 조건의 계약이 성행해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강신영 한국포장기계협회사무국장

셋째, 개발력 및 창의력 부족이다. 업계는 영세하고 과당경쟁에서 내것이라 내세울 수 있는 독창적인 기계를 만드는데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손쉽게 선진국의 기계를 모방 복제하는데 이 제품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넷째는 비전문성으로 업체마다 시장의 협소로 이것 저것 만들다 보니 세계 최고라는 자

부심을 갖는 품목이 없다.

마지막으로 유관 산업의 뒷받침 부족을 꼽았다.

기계제작에 소요되는 부품의 질이 세계 수준에 많이 낙후되어 고가의 수입품으로 대체되거나 국산을 사용했을 경우 소비자의 불평은 낮은 인지도에 따른 의심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한국포장기계협회라는 공적 단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강 사무국장은 강조했다.

“했수로는 3년째 입니다만 현재 활동은 미미한 상태이고 회원사는 50여개로 회원사 영입 및 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고 강 사무국장도 자평했다.

올해부터 협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꾸준한 홍보로 회원확보에 노력하고 회원사의 종합 카탈로그제작을 통한 광고나 협회 주관의 기

계전시회 개최 등 협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또한 회원사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동부품 소재개발, 구매 그리고 중첩된 기술개발을 지양하여 시간과 금전적인 낭비는 최소화하도록 협회에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것들은 협회의 공동노력도 중요하지만 유관단체의 협조와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세계시장에서 Made in Korea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는 홍보라 분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홍보는 전시회가 고작이고 현재는 각 업체들 단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세계 우수한 포장전시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한 국내 포장전도 세계 바이어들에 대하여 홍보 지원을 아낌없이 하기 때문에 기계의 질에서 국산보다 떨어지면서도 세계시장에서 꾸준히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공압, 모터 등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의 질이 낙후되어 수출할 경우 소비자는 선진국 부품을 원하고 이에 맞춰 제작하다 보면 원가인상 및 부품공급 지연 등 제작업체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기계를 수출했을때 곱대기만 국산이고 기타 다른 것은 선진국의 부품을 수입하여 수출하게 되는 결과로 많은 고생을 하여 제작 납품한 후 보람보다는 허탈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단기간내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유관협회 및 단체에서 소재를 개발 발전시켜야 된다고 강 사무국장은 힘주었다.

중전의 경제질서는 복싱이나 레슬링처럼 체급이 있었으나 현재의 경제질서는 구별이 없어서 키가 작은 우리 선수들은 키 큰 외국선수의 벽앞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된다고 한다.

그는 "세계경제질서는 WTO의 출범으로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였고 이러한 세계질서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장점 및 독창적인 기술로 승부하고 서로가 단결협력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말했다.

강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홍아기연은 자동성형접착포장기 전문제작업체로 제약관련 제조설비를 수입 공급해오다 1981년부터 국산화하여 200여대의 납품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제약분야의 캡슐, 티블렛포장 및 제과의 초컬릿, 껌, 캔디, 화장품, 문구, 화학, 전기, 전자, 배터리 등 단위포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창립 25주년이 된 현재 호주, 일본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남미에 수출, 지난해에는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홍아의 자동성형접착포장기는 종래의 카톤포장에 비해 현격한 자재절감 효과가 나타나며, 투명한 시트로 전면을 블리스터하여 제품 식별성이 탁월하고 최근 행거타입으로 편의점, 슈퍼마켓을 겨냥하고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다. 홍아의 포장기는 기존 고정된 블리스터의 개념에서 탈피, 제약용 PIP를 더욱 보완한 카드이용 포장기 외에도 연질필름과 경질시트를 동시 또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외화표시 원화자금 품목으로 지정돼 유저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했고 국립공업기술원에 EM마크를 신청해 놓고 있다. □

오선진 기자